



**2021년 / 11월 2주차**

###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 추가 모집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동아리 활동이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연기되었다가 완화된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을 원하는 동아리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11월 12일(금)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일정	비고
1	기행 현대사	영상으로 선행학습 후 해당 지역 직접 답사	11월 ~ 12월	추가 모집
2	전통주 담그기	전통주 명인과 함께 전통주 담그기 시연	10월 ~ 11월	모집 종료
3	전북의 섬 답사	새만금 권역인 군산과 부안지역 섬 답사	11월 ~ 12월	모집 종료
4	전주 답사	사전 학습 이후 전주 지역 문화유산 답사	11월 ~ 12월	모집 종료

● <기행 현대사> 동아리가 추가 모집을 요청해 1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온다라 교양플라자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교양 플라자가 대면 비대면 강좌로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또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 센터(063-220-3203)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 강의 주제는?

#### [1부] 국내 학자 초청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1	11월 4일(목)	16:00	조선시대 사람들의 최애편 '담배'	장순순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2	11월 11일(목)	~	항일운동을 도운 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변은진 (전주대학교 HK교수)
3	11월 18일(목)	18:00	소설과 영화 사이, 장아이링의 「색·계」	김명희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4	11월 25일(목)	(2시간)	눈이 즐거운 지역 이야기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부] 국외 학자 초청

\* 국외 학자 오프라인 강의는 **이원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5	12월 2일(목)	16:00	황해도 연안군 지역의 농민과 저수지 이야기	홍창국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日本一橋大學)
6	12월 10일(금)	18:00	일제강점기 조선교회의 자치와 자립 -최중진(崔重珍)의 자유교회와 그 주변	배귀득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日本立命館大學)
7	12월 16일(목)	10:30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e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8	12월 23일(목)	12:30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e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 [랜선 체험]



with. 꿈드림원예힐링센터

원예를 활용한 마음의 힐링 찾기  
스칸디아모스 원목액자 만들기

\* 체험 관련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케즈윅 마을 언덕의 선사시대 유적**  
- 마을 지척에 수천 년 전의 유적이 지금도 생생이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마을 언덕배기에 있는 스톤 서클

케즈윅 B&B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을 든든히 먹은 다음, 배낭은 숙소에 맡기고 아들과 둘이서 이곳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을 찾아 길을 나섰다. 동네를 벗어나니 높진 않지만 언덕길이 나타난다. 웬만한 영국의 길들은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감성적이다. 특히 시골길은 하나같이 세월을 간직한 돌담과 오래된 수목으로 인해 마음을 가라앉혀 주고 길에 대한 기대감을 연장시켜 준다.

케즈워 시골길도 그렇다. 마을에서부터도 그렇고 오솔길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나뭇잎은 조용히 밝은 미소를 띠며 순례자를 평안하도록 배려하며 맞이한다. 마치 '조금만 가면 신비한 과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평안함과 기대감으로 가득해 진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10여 분을 걸으니 언덕 정상에 도달하였고 넓은 초원에 몽글몽글한 바위들이 원을 그리며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다. 바위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이 쓰다듬어 준 까닭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순둥이 같다. 바위에 낀 이끼 역시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다.

그 입구에는 내셔널 트러스에서 세운 유적 설명 안내판이 서 있다. 여기에는 담이나 게이트도 없다. 고원 같은 평탄한 잔디밭에 Stone Circle이 웅크린 양떼들 모양으로 원을 그리고 있는 광경인데, 평화로운 분위기다. 안내판에는 'Castlerigg Stone Circle' 라는 제목과 함께 「Who built Castlerigg and When?», 「How was it built?», 「Why was it built?」 등 등의 간략한 설명이 있다.



유적지 입구에 있는 설명서

또한 명색이 선사시대 유적이라 할 수 있는 귀한 유산인데, 울타리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곳 사람들의 역사 보존 정신이 부럽다. 물론 유적 역시 스톤헨지나 아이브버리의 유적처럼 지은 목적이나 그 용도 등이 아직도 명확한 규명이 안 되고 있다. 다만 이곳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성한 장소로 여기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아무튼 아직도 'Castlerigg Stone Circle'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손 치더라도 유적과 주위를 파손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운 생각이 앞설 따름이다. 또한 아들과 내가 아침 일찍 서둘러 왔기 때문에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신비함이 더해졌을 수 있었겠지만, 오래된 과거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한 관광지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





아침 햇살에 실루엣이 된 스톤 서클 광경